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channels 6-12.



“우리가 직접 만든 음악이라 자신있죠”

달샤벳 여덟 번째 미니앨범 ‘조커’ 로 신선한 매력 어필

절치부심(切齒痛心)이란 말이 떠오른다. 새 앨범을 낼 때마다 “이번엔 꼭 잘 돼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2011년 데뷔해 어느덧 5년 차. “잘 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전속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미래가 걱정됐어요. 또 지난해 수빈의 교통사고와 우희의 기흉 수술 등 악재가 잇달아 더욱 간절해졌죠.”

수빈이 프로듀서를 맡아 작곡가이자 친구인 심재훈, 이수민과 전곡을 작사·작곡·편곡했다. 이들과는 이전 앨범 수록곡 ‘그냥 지나가’를 함께 만들며 공동 작업을 했다고 한다.

수빈은 “달샤벳을 위한 노래를 만든 건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이후”라며 “활동이 미뤄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곡 작업이었다. ‘달샤벳이 부르면 어떨까’ 무대를 그리며 만들었다”고 말했다.

멤버들과 논의를 거친 타이틀곡 ‘조커’는 하나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음악과 의상, 춤의 연결 고리가 있다.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조커를 ‘밀당남’에 비유해 가사를 썼고, 무대에 선 조커의 연인인 할리퀸의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차용한 의상과 메이크업을 선보인다.

작업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멤버들은 “할리퀸 코스프레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치마의 절개 라인 하나까지 신경 썼다”며 “안무 수정도 네댓 번 바꿨다. 노래, 춤, 의상 등 우리 의견이 100% 반영된 앨범이어서 애정이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커’의 가사가 방송사 심의에 걸려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KBS 심의에서 제목과 가사에 담긴 ‘조커’가 욕설을 연상시키고 일부 가사가 남녀의 정사 장면처럼 표현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것. 이후 가사를 수정한 뒤 재심의에 통과해 방송 출연은 원활해졌다.

“결그룹이 많은 상황에서 때론 위축됐지만 오래 쉬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수빈이가 곡을 쓰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준비한 앨범이니 한층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어졌고요. 멤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매력도 많으니 이번엔 걸러나 펼쳐보고 싶어요. 자신감이 커졌죠.”(아영, 우희)

EBS1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s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Table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What you know about fate sees today's fortun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화장품·의류·게임까지 ... 연예기획사 사업 다각화

전문가들 평가 ‘긍정적’

연예기획사들이 음반 제작 및 가수 매니지먼트와 동떨어진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며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영역도 화장품, 의류부터 골프 비즈니스, 유통, 관광업까지 다양하다.

코와 국내 주요 백화점과 프리미엄 마켓에 진출해 코코넛 오일, 코코넛 칩 등 관련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SM엔터테인먼트의 부가 사업은 한류 열풍의 주역인 스타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관광객 등을 겨냥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세운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이 대표적이다.

SM은 중국 여행업체와 제휴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며 올해 안으로 수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M은 모바일게임업체와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개발·유통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동성애 혐오 조장 세력에 강력 대응하겠다”

김조광수 감독·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 감독(사진 왼쪽)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달라는 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광주트라우마센터 주최로 열린 김조광수 감독의 강연을 앞두고 일부 시민들이 강연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